

말레이시아 섬유 산업 - 산업의 고도화가 당면 과제

동남 아시아에는 정치·경제면에서 안정치 못한 나라가 많은데, 말레이시아는 강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10월에 22년간의 장기 집권을 자랑하던 마히틸 전 국무총리가 물러나고 아브드라 현 총리가 취임하였다. 새 총리는 마히틸 시대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동결하고, 농촌 진흥이나 사회 정책의 충실, 교육 중시, 오직(汚職) 추방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높은 임금과 부족한 노동력, IT에 관련된 전자·전기 기기를 주력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섬유 산업의 육성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 안정된 정치·경제로, 여러 나라와 FTA 등 교섭중

2005년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은 5.3%로, 2004년의 7.1%를 밑돌았다.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르자, 원래 GDP 성장률을 5~6%로 예측하였는데 대체로 그 범위로 안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예상 성장률 5.5%~6%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05년 7월 21일 말레이시아의 통화 “링깃”이 관리 플로트제로 바뀌었는데, 이는 바로 그날 중국의 인민 위엔이 관리 통화 바스켓제로 바뀌는 것에 발 빠르게 반응한 것이었다.

아시아 통화 위기 때인 1998년 9월 8일 말레이시아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지도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고정 시세제로 바꾸고 1달러=8링깃으로 고정하였다. 관리 플로트제로 바꾼 후로도 3.78링깃으로 안정되어

었는데, 현재는 3.70링깃을 돌파하였다.

링깃의 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다. 오버 나이트(over night) 정책 금리의 경우 2005년 11월의 2.71%에서 2006년 2월에는 3.25%가 되었다. 원유가 급등을 반영하여 소비자 물가는 평균 5% 상승하였다. 2005년 12월 13일 일본 수상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을 때 아브두라 총리와 일본·말레이시아 경제 연휴 협정(EPA)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자유 무역 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2006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부터 10년간은 97%의 품목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그 중에서 섬유 관계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말레이시아 상품을 일본이 수입하는 경우에 8%의 관세가 0%로 된다. 일본 상품을 말레이시아가 수입하는 섬유품은 원래 특수한 소재밖에 없다.

일본·말레이시아 FTA는 일본에게 네 번째이나 말레이시아에게는 첫 번째 FTA가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영국과의 FTA 교섭이 마무리 단계이며 미국, 호주, 인도가 검토중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말레이시아·미국 간의 FTA가 체결될 것이나이다. 미국에서는 봉제품 수입에 28% 관세가 부과된다. 이 관세가 철폐되면 인건비가 높은 말레이시아 봉제품도 중국품보다 싸게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경쟁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 2007년 중기에 발효가 예측된다.

◎ 2005년 섬유 수출은 4% 증가하였으나 사류는 크게 증가

인구가 약 2천 6백만명인 말레이시아의 섬유 산업은 수출 지향형이며, 극히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영세 기업으로 되어 있다.

노동 인구가 적고 임금이 높으며 IT 산업이 발달하여, 말레이시아의 섬유

산업은 노동력 확보가 계속 어려운 상태이다.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산업으로 되어 있는 석유 산업에서는 특히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미얀마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최저 임금은 말레이시아 사람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차별은 없는데, 절대적인 인력 확보와 연령 구성차에 따른 노무비 경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종업원 총수 중 30%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2005년 수출액이 전년비 11% 증가하여 5,338억 링깃이었다. 1999~2003년까지는 3천억 링깃대이던 것이 2004년에 4,807억 링깃이 되었고 2005년에는 단숨에 5천억 링깃대로 올랐는데, 전자·전기 제품이 9.6% 증가한 2,647억 링깃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석유품 수출은 6.2% 증가하여 103억 링깃이다. 쿼터가 폐지되면서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 29억 링깃으로 전년 수준이고 EU 수출은 4.4% 증가된 18억 링깃이었다. 품목별로는 어패럴이 전년 수준이나 텍스타일, 그 중에서도 사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터키, 중국, 시리아, 인도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